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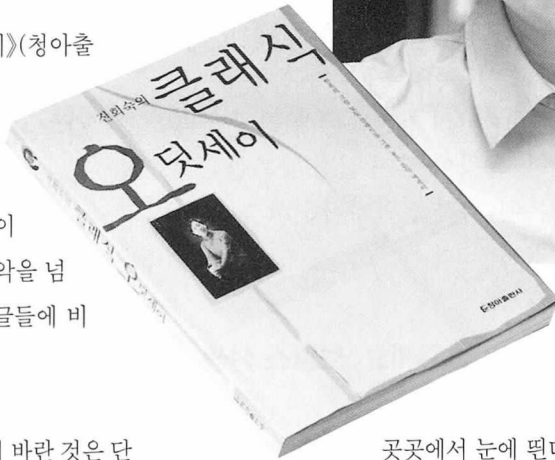
음악의 숲에서 거닐었던 아름다운 나날들의 기록

《클래식 오딧세이》 펴낸 진희숙씨



진희숙씨

음악평론가 진희숙씨(46)가 펴낸 《클래식 오딧세이》(청아출판사)를 읽으면 음악이 듣고 싶어진다. 눈으로만 읽으며 느낀 22곡을 이제 지그시 눈감고 귀와 살갓으로 듣고 싶어진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 그 노래가 궁금해지는 살가운 이 책은 지은이의 첫 작품이다. 음악평론가로 또 방송 구성작가로 클래식과 국악을 넘나들면서 활발하게 활동해오는 동안 발표한 많은 글들에 비해 첫 책이 띄는 셈이다.



청아출판사/B5변형/304면/15,000원

책을 읽으면 듣고 싶어지는 작품들

그가 생애 첫 책을 내면서 바란 것은 단 한가지. 바로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그 곡이 궁금하다, 듣고 싶다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마음으로 클래식을 느끼게 해줬다”는 낯모르는 독자의 평도 들었고, 클래식에 문외한인 후배와 친구 언니의 격찬도 받았으니 그 바람은 수월하게 이룬 셈이다.

“이야깃거리가 있는 곡들로 골랐어요. 내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고, 추억과 감상을 분명하게 끌어낼 수 있는 곡들이죠. 물론 모두 좋아하는 곡이고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이지만, 이보다 더 좋아하는 곡들도 많은데 아쉬워요. 하지만 그 곡들은 추상적인 이야기나 형용사의 나열이 될 게 뻔해 신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풋각시처럼, 무척 좋아하는 곡을 글로 풀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놓는다. 그렇다고 책에 소개한 곡들이 그의 사랑을 덜 받는 것은 아니다. 외려 추억과 지식을 동원해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고마운 곡들이다.

지은이가 아무 고려 없이 늘어놓았다는 22편의 글은 곳곳 꿰뚫힌 줄로 엮을 수 있는 질서는 없지만 오히려 그런 무질서가 독특한 개성으로 도드라져 보인다. 시대나 작곡가, 악기, 곡 형태 등이 별 상관없는 듯하고, 지은이의 감상과 연상도 국경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바흐의 <마태 수난곡> 중 알토아리아인 <나의 하느님, 눈물로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서는 독일의 미술가 케테 콜비츠를, <나폴리 민요>에서는 스위스에서 만난 프레디 아저씨를 이야기하는 식이다.

독자를 고려하는 듯한 체제를 갖췄다는 말에 “고려는요 무슨” 하며 손사래를 치지만, 책을 찬찬히 읽다보면 지은이의 숨은 배려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슈베르트의 <음악에 부처>나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먼저 소개한다거나, 스테파나의 <몰다우>, 하이든의 <천지창조> 같은 대작은 물론 드비쉬의 <달빛>, 멘델스존의 <무언가> 중 <베니스의 곤돌라 노래> 같은 ‘소품’도 적절히 배치하는 안목이 돋보인다. 이는 마치 글 순서대로 음악을 찾아 들을 독자들을 미리 내다본 것인 양, 서로 겹치지 않고 감상을 방해하지 않을 순서로 참 묘하게 배열돼 있다.

음악을 감상하는 데 중요한 것은 마음

이 책은 지은이가 서문에서 밝힌 대로 “음악과 예술에 대한 변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한 사람의 내밀한 고백”

이다. “글을 쓰는 동안 비로소 살아 있다고 느끼”는 지은이가 글 속에 “총체적인 나”를 담아, “클래식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방백’이기도 하다.

“고전음악을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는 일은 중요해요. 문화생활은 삶을 참 풍요롭게 하거든요. 독자들이 제 글을 통해 음악을 듣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길 바래요. 음악을 듣는 데 중요한 것은 좋은 오디오가 아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은이는 타고난 글솜씨를 발휘해 ‘야심작’을 준비하고 있다. 1992년부터 <객석>에 연재해 좋은 반응을 얻은 국악이야기를 책으로 묶을 예정이다. 연재한 글들을 다듬고 더해 다시 찬바람이 불 때쯤 선보일 작정이다. 서양 고전음악을 깃가로 불러들인 그의 생각과 감상이 국악에선 어떻게 표현될지 무척 궁금하다.

—차정신기자